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 유 현

- 現 육군방공학교 군종목사
- 종신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역사신학)
- 現 육군방공학교, 천군교회 군종목사



1. 머리말 : 연구의 목적

2011년 여름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이 되었던 해병대 충기 난사 사건¹의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¹ 강화도 해병대 충기 난사 사건은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해병대 2사단 김모 상병(당시 19세)이 K-2 소총을 탈취해 동료 해병들을 향해 사격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 또한 7월 6일 새벽에 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범행 공모 혐의로 같은 부대 소속 정모 이병(당시 20세)을 긴급 체포했다. 사건의 주범 김민찬 상병은 해병대 사병들 사이에서 후임병에게도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 문화의 일종인 '기수 열외'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상병은 사고 조사단과의 문답에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 열외는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하였던 정 이병은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가혹 행위를 당하여 분노와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범 김 상병과 공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도 해병대 충기 난사 사건", 2012. 7. 26, 한국어 위키피디아(ko.wikipedia.org) 참조.

‘기수 열외’라는 말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기수 열외란 기수 서열이 엄격한 해병대 내부에서 특정 병사에 대해 ‘이제부터 해병대가 아니니 선배나 후배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집단 안에서 집단원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집단 안에서의 의무는 물론, 더 나아가 집단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일체를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수 열외는 단지 해병대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서 군 안에서 여전히 잔존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왕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악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총기 난사 사건 몇 개월 전에 해병대 내에서 만연한 일반적 가혹행위 및 기수 열외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상황 인식이 박약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더 나아가, ‘여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집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과정에서 집단원 중 약자를 도

² 2011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해병대 모 부대 가혹행위 피해 사례로는 선임병이 청소 불량, 군기 유지 등의 이유로 후임병 4명을 이층 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온몸을 폭행한 사례, 후임병에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불펜, 가위 등을 끼워 꽉 잡게 한 후 도구를 돌리는 가혹 행위를 수시로 하여 피해자의 양쪽 검지 관절뼈를 돌출되게 한 사례, 손바닥, 주먹, 슬리퍼 등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행한 사례, 선임 기수와 조리 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면 후임병에게 빵 5개를 10분 내 먹으라고 시킨 뒤 먹지 못하자 손바닥, 주먹으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례, 폭행 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사병을 소위 기수 열외하여 후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이 부대의 2010년 의무대 환자 발생 보고서에는 고막천공 30여 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 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달했지만,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단의 영관급 간부는 “과거보다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돼 해병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인권위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병대 가혹 행위 사례, 손에 가위 끼워 돌리고 빵 5개 10분 내 먹게 해”, 2011. 3. 24, 인터넷 한국일보(www.hankooki.com) 참조.

대시키는 것을 불가피함을 넘어서 자연스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집단원 내부에서의 자연스러운 인식이 아닌가 예측해 본다.

물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에 불필요한 요소로 보이는 존재를 집단에서 과감히 제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틀린 선택은 아닐 것이다. 군에서는 이를 흔히 복무 부적응자라고 하는데, 그 해당 인원을 무조건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라도 복무 적응을 시키기 위한 관리가 사전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무 적응이 좀처럼 달성되지 못해 보인다면 부대라는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틀린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복무 부적응자라는 이름이 씌워진 한 사람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내가 어렵지 않게 거절당했구나”라는 쓰디쓴 경험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 이른바 그 ‘거절의 경험’이 군에서의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전 캠프에 입소하는 병사들은 보통, 그 이전부터 공동체에서 걸돌거나 사실상 분리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이전 학교나 다른 또래집단에서 타의에 의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을 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배려받거나 보호받거나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걸돌게 되는 삶의 불안정성이 2000년대 이후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도 삶의 불안정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자기 자신이 고립되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며, 부대 내에서는 복무 부적응 및 악성 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각 입소자의 사정에 공감하며, 향후 공동체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아 강도를 증진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군대 혹은 전역 후 각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전캠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심으로 사람을 향한 공감적 사랑이 무

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따르는 것을 가장 잘 해야 하는 군종목사는,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라는 질문 사항을 스스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를 항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 캠프 시행 이전부터 군종목사가 병영 내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간략히 보며, 비전 캠프 활용에 있어서 그 성경적 근거를 고찰하며 이에 근거하여 군종목사가 비전캠프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2. 비전 캠프 시행 이전부터 군종목사의 역할 및 비전 캠프 시행의 배경

1)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 :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장병의 조력자

육군에서 비전 캠프가 시행된 것은 창군 이래 최근의 일이다.³ 그러나 비전 캠프 시행 이전에도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군에 입대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통한 건전한 국가관 및 더 나아가 건전한 인생관의 함양, 이를 통한 비전 투손실 및

³ 육군의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2003년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당시 군종감인 대령 박상철 목사 책임하에 비전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군종장교들에 의한 육군의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육군본부, 〈비전 캠프2007〉(대전 : 육군본부, 2007), 4.

⁴ 주연중은 이를 군종 활동의 핵심 가치와 우선 가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핵심 가치는 종교적 지원을 통한 신앙 전력의 향상과 이를 통한 최고의 전투력 유지로 보고 있으며, 이 핵심 가치가 구체적인 상황하에서의 가치의 경중 완급에 따라 상담 혹은 비전 캠프, 기타 등등의 우선 가치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주연중,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군선교신학4》(서울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6), 143-144.

정신 전력 강화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⁴

특별히 건전한 인생관의 함양의 차원을 보면, 한국 군 내에서 군종목사 제도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전쟁 당시 미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스 병사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로서 탄원한 것이⁵ 군종목사 제도 설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군종목사 제도와 그 역할이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문제라 할 수 있는 생존 욕구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장 상황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자기 의지가 아닌,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마음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⁶

이와 더불어, 전쟁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존 문제에 대한 내적 갈등’이 군에 입대하는 수많은 장병 가운데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고, 병사로 입대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자신의 전역 날짜를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입대 이전까지 각자의 삶의 특수성 가운데서 자신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기 미래를 모색하고 또 이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던 지난 20

⁵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서울 : 육군본부, 1975), 39-40.

⁶ 이러한 심리는 전장에 종군하는 성직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티리케(Thielicke)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포위전 당시 종군하였던 목사들조차도 불안, 공포, 괴로움을 매일 새롭게 극복해 나가야 했으며, 이를 통해 생활과 설교가 밀착된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더욱 실감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H. 티리케, 심일섭 옮김,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6.

년간(특히 입대 직전 1-3년간)의 삶과 전혀 다르게, 기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격적인 의사 표현이나 선택을 통제받으며, 더 나아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고의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자신에게는 미약하다는 사실에 부딪히며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은 수많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이며 사회적인 생존 문제와 더 나아가 삶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에 근거한 삶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군 복무 장병들의 비전 투손실 예방 차원에서의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은 군종목사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강조되며 시행되어 온 것이며, 또 군 내에서도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군인들의 탈영과 절도, 사기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병 상담소 설치를 통한 군종목사의 상담 업무 시행 조치는 군종목사 제도 시행 초기인 1957년 2월 14일의 일이며, 국방부에 의해 문제 사병 선도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1967년 6월의 일이다.⁷

이는 제1차 전군 신자화 운동이 태동한 계기가 되는 한 일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한신 장군은 군 내에 보호 사병, 출감자, 이상 성격자, 무의탁 가정, 극빈 가정 출신 등의 문제 장병이 15,200명이나 된다는 보고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이들을 모두 교회에 보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으로 정신 전력 강화를 통하여 군의 든든한 장병으로 거듭나도록 지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 지시 사항은 1군 내 모든 장병들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1인 1종교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지시

⁷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군선교 신학1》(서울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132-133.

사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로 당시 큰 관심사였던 보호 사병들이 감소되었고, 군에서의 사고가 뚜렷이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⁸

2) 비전 캠프 시행과 관련된 상황 : ‘자살’과 관련된 불안 요소의 증가

한편, 최근 육군에서의 비전 캠프 시행 시작(2004년부터)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의 군종목사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정신 전력 강화 활동에 비해 최근의 활동이 어떤 포커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함이다. 비전 캠프 2007 TF팀에서는 그 포커스를 ‘자살 예방’이라고 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군 내부에서의 근거, 사회적 근거 2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군 내부의 근거를 고찰할 부분이란, 근래 민주화 및 정보화

⁸ 권오민, “신세대 입영 장병들을 위한 군 선교 전략” (서울 : 총신대학교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19-20.

한편 그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1970-1974년	1975-1979년	1980-1984년	1985-1989년	1990-1994년	계	군 사고자 수
발생자 수	78,176	15,694	13,370	2,793	110,303	19,248	
사망자 수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탈영자 수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자살자 수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총합	208,553	40,038	41,392	848	209,831		

표2) 위 기간 중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	발생자 수	군무 이탈	폭행	자살	총기/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 : 감리교신학대학, 1987), 7.

의 약 2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군에서도 일반 사회의 대군 불신의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별히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는 자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과 달리 자살을 일반 사회는 모르게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 가운데 한 병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및 후속 조치 없는 일반 사회의 대군 불신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자율성을 통제하며 전쟁이라는 특수 목적에 맞추어 명령과 복종의 체계화로 구성되어 있는 군 조직의 특수성이 소셜네트워크 세대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군 입대 연령층의 청년층에게 있어서 내적 갈등 요소로 더욱 심화될 요지가 있으며, 이러한 불안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없이는 악성 사고로 인한 대군 불신 요소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1997년말 IMF 이후 지속적으로 그 도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것이 야기하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 증가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이라 보며, 집단적인 힘으로서의 사회의 약화가 자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개인이 사회에 소속되는 것을 즐겨하면 즐겨할수록 그만큼 사회가 개개인 간의 응집력과 활력을 이루게 함으로써 한 개인이 외로워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스스로의 허약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건전하게 조절하지 못하며 개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끝낼 권리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IMF 이후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오늘날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사

회적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사회에서의 소외는 남녀노소 수많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유혹을 더욱 많이 하고 있다.¹⁰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극복 능력 및 기술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반적 맥락에서 현재 군에 유입되는 장병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적응 장애나 행동 장애, 대인관계 장애 등을 유발할 요인이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군에 입대하는 인원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인원들이 그들 자신의 요인 혹은 각자의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외되고 왜곡된 인격으로 형성되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이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왜곡된 자기 인식 체계의 전환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통한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고,¹² 이는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비전 캠프 입소자의 공동체 적응 강화를 위한, 비전캠프의 성경적·선교적 활용 가능성

1) 비전 캠프의 활용을 위한 성경적 근거 (사 61:1; 요 7:37-38)

이렇게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비전 캠프가 부대에서 시행되는

¹⁰ 박치현, “자살 유혹하는 사회 : 자살은 과연 개인의 고독한 결단인가”, 〈복음과 상황〉 2009년 8월호 (서울 : 복음과상황, 2009), 67-68.

¹¹ 육군본부, *Ibid.* (2007), 4.

¹² *Ibid.*, 4. ; 육군본부, 〈비전 캠프〉 (대전 : 육군본부, 2003), 5-6.

⁹ 에밀 뒤르켐, 황보종우 옮김, 《자살론》 (파주 : 청아출판사, 2008), 249-250.

것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것은 부대 내 인사 계통이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교관 활동은 군종병과에서 지금까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군종병과 중에서도 주로 군종목사가 타 종파 성직자와 달리 비전 캠프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각 부대에서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각 종파의 종교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종목사조차도, 가령 인격 지도 시간이나 비전캠프 등의 시간에 전도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필자가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이 ‘교회에 와라’라는 말의 전파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굳이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되고 느껴지는 선한 영향력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군종목사가 자기 부대에서 어떤 모습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선교에 미치는 것이 크다는 것이다.

특별히 군 복무 중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장병들은 부대에서 특별히 선별된,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군 복무 적응 문제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군 복무라는 것이 입영하는 장병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 이상의 무력감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88만 원 세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삶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이미 군 입대 이전부터 생존 문제에 있어서의 자기 무력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실의 문제를 떠안는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 입영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¹³

이런 수많은 문제를 떠안은 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병들, 특히 비전 캠프 입소 장병들에게 있어서 비전 캠프를 주도하는 군종목사는 어떤 선교적인 자세로 입소 장병들의 공동체 적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을 것인가? 그전에 비전 캠프를 성경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적용할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이는 성경을 상담의 차원에서 풀이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현직 목사이자 목회상담학자로서 활동 중인 임현만의 논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임현만이 목회 상담의 궁극적 목적과 필요성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 중 본 논문에서 고찰해 볼 것은 이사야 61장 1절¹⁴과 요한복음 7장 37-38절¹⁵이다. 우선 이사야 61장 1절의 경우, ‘상답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라’는 전체하에, 목회 상담의 궁극적 목적으로 예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상한 마음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중독에 빠진 자’, ‘갇힌 자’는 ‘정신병원에 가뉘야 할 상황이나 귀신이 들린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¹⁶ 이사야 61장 1절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1차적으로는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¹³ 관련하여 우석훈은, 그의 글에서 오늘날 한국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40-50대의 남자가 주축이 되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으로 본다. 이것이 20대 사이의 강요된 승자 독식 게임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대의 정신건강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지만, 교회나 집집에서 다소 기묘한 방식으로 정신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외에는 상담이나 공동체 문화적 지원이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석훈, 박권일, 《88만원 세대》(서울: 레디앙, 2007), 274-275.

¹⁴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¹⁵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ἐὰ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ὸς καὶ πινέτω.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χ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έουσιν ὕδατος ἑφίτου.”³

¹⁶ 임현만, 〈목회 상담학〉(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교재, 2005), 3.

일정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모두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현만의 해석은, 상담을 통한 마음 중심의 치료 및 해방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 논지를 발전시켜 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져야 할 법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 왜곡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가령, 가족 상호 간의 화목과 순종 및 섬김 대신 폭력과 반목(反目), 심하게는 존속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단체 생활 간에 동료들 간의 동료애 및 협력 대신 집단 따돌림 문제로 인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 제도를 기피하는 현상(피해자의 경우) 및 사람을 사람 그 자체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의 고착화(가해자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로 인한 대인관계 극복 능력의 약화 및 삶의 불안정성의 고착화로 인한 스스로 제약되는 삶 및 희망의 상실 등을 주요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간 왜곡된 시각이 방치되고 고착화될수록 각 개인의 마음 중심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각 공동체 그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될 뿐더러 그렇게 형식화되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자의 반 타의 반 고립되는 악영향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된다.¹⁷

집단 상담 및 치료로서의 비전 캠프를 통해 입소자를 만나게 되는 군종목사의 목적으로는,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아 강도를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입소자에게 있어서 앞서 설명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왜곡된 시각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그 왜곡된 시각의 원인을 탐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왜곡된 시각이 어떤 모습으로서 각 입소자의 공동체 내 소외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그

가운데 비전 캠프의 목적으로서, 왜곡된 시각의 교정 및 그 시각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되는 상한 감정의 치유에 있어서 최소한 그 가능성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임현만은 목회 상담의 목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한복음 7장 38절 중 ‘그 배’(κοιλίας αὐτοῦ)라는 단어를 ‘속 깊은 곳, 존재의 진공’이라 해석하며, “사람의 허물, 즉 죄, 약점, 상처 등으로 인한 두려움, 수치감,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다. 목회 상담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므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⁸ 즉,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 깊은 중심을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은 마음’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가운데 치유되고 죄 사함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후자 쪽이 목회 상담의 필요 및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집단 상담으로서 비전 캠프의 성경적 근거를 간략하게

¹⁷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비전 캠프에 입소하였던 필자의 소속 부대 한 병사는 가정 및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집착하게 되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입대 때부터 이미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던 이 병사의 생활기록부 기록 중, 장래 희망란에 “대한민국과의 인연을 끊고 일본에 가겠다”는 기록이었다. 관련해서 “전역하는 대로 군복을 찢어 없애 버리고 싶다”는 말도 상담 중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편, 현재 비전 캠프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입소자들은 대부분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 친밀감 결여, 낮은 자존감, 복무 부적응 행동, 여러 가지 신경증적 증상(막연한 두려움,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 억압된 분노, 박탈감,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입소자 중 10% 정도는 자살과 관련된 임상적 징후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군 입대 전의 외상(trauma)을 비롯하여(결혼 및 이혼 가정, 가정 학대, 집단 따돌림 경험, 대인 기피 등) 현재 군 생활상의 위기(체력적 한계, 업무 미숙, 애인 변심,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피병 증상을 가진 입소자들도 있다. 육군본부, *Ibid.* (2007), 8.

¹⁸ 임현만, *Ibid.*, 4.

나마 생각해 보며, 어떤 사람이 비전 캠프라는 용어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설명한 사실을 기억해 본다. 성경적 시각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서의 비전 캠프를 생각해 본다면, 비전 캠프 입소 장병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만나게 된 크고 작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소외된 원인 및 그 원인이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왜곡된 시각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탐색하며, 그렇게 ‘포로되어 갇히게 된’ 마음 깊은 중심이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연구한다.

여기서 기존 상담학이 내담자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가치 중립적 시선을 견지하며 내담자를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적 시각에서의 상담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보편적 허물의 문제에 집중’하여¹⁹ 그 내담자의 마음의 근본적인 답을 알고 계시는 보혜사(Counselor)인 성령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²⁰ 실제로 예수님도 각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죄 사함의 문제를 꼭 거론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2)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 장병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적 활용의 가능성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군종목사가 비전 캠프를 통해 목사로서 비전 캠프를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캠프 입소 장병의 복무적

¹⁹ 그렇다고 이것이 내담자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근본적 답을 찾고자 하는(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당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내담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접근을 할 수 있다.

²⁰ 임현만, *Ibid.*

응을 위한 공동체성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방법론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군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종교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종목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비전 캠프 시간에서도 그러한테, 내담자의 위치에 있는 입소 장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입소 장병의 종교가 프로그램 진행자인 군종 목사와 같은 기독교일 경우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적인 가능성은 비전 캠프의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비전 캠프를 실제로 주로 운영하는 군종목사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선교적인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종목사의 태도에 선교적 가능성을 두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시금 비전 캠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2007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인 비전 캠프가 어떤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지, <표1> 비전 캠프의 단계 구분과 핵심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1>에서의 단계 및 핵심 개념으로서 운영되는 비전 캠프의 핵심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캠프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가정하에 관계적 특성을 모든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문제 해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진행자와 입소자 사이의 관계이며, 입소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을 경험한다.

둘째, ‘Here & Now’의 관점에서, 입소자 서로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신념에 직면함으로써 자기 내면세계의 비합리성에 근거한 문제 행동 패턴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하고 모성적인 환경을 입소자가 자각함으로써, 입소자들의 유치하고 덜 발달된, 때로는 거칠기까지 한 감정들을 솔직히 표출할 수

〈표1〉 비전 캠프의 단계 구분과 핵심 개념²¹

단계	일차	해당 프로그램	핵심 개념
사전 준비단계	1일차	등록 MMPI검사	• 등록 시 환영받는 느낌 갖게 하기 • 차분하고 여유있는 MMPI 검사
도입 단계	1일차	오리엔테이션 #1. 자기 소개하기 #2. 마음을 열어오	• 비전 캠프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하기 • 비전 캠프 규칙에 동의하기 • 수용적 존중을 통한 마음 열기 • 어색함 누그러뜨리기(Ice Breaking) • 낮은 수준의 자기 개방
전환 단계	1일차 2일차	#3. 나의 이야기 #4. 나의 발견(심리 검사) #5. 더불어 함께 #6. 영화 감상/종교 행사	• 갈등과 저항에서 집단 응집으로의 변환 •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공동체 활동 → 집단의 안정성, 신뢰성, 응집력 • 심리 검사/영화 → 자기 발견의 심화
작업 단계	3일차	#7. 서로 통해요 #8. 나를 풀어주기 #9. 나의 꿈을 찾아서	• 행동 변화의 촉진 - 의사소통 개선과 대인관계 향상 -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의 변화 • 감정의 정화 → 과거를 덮고 미래로
종결 단계	4일차	#10. 마음 다지기 #11. 새롭게 시작해요 (수료식)	• 실천 의지 강화 • 나눔과 추수 • 미래에 대한 희망 • 비전캠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있도록 허용함으로 내가 현재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과격하거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즉각적으로 명확히 알려준다.

넷째, 입소자들 서로가 상대방의 거울 역할을 하며 자기에게 비춰진 상대방의 모습을 되비춰주는 것을 체험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자기 영역(hidden area)을 개방하도록 돕고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영역(blind area)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된다.²²

²¹ 육군본부, *Ibid.*(2007), 21.

이를 통해 비전 캠프 진행자로서의 군종목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각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캠프 입소자들에게, ‘대인관계에 과감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안전하며 모성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입소자들의 털 발달되거나 거친 감정들이 솔직히 표현될 수 있도록 수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관찰은 하지만 선불리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의미이다. 그만큼 군종목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입소 병사들을 사랑하고, 그들 각자의 성장에 있어서의 사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근본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정을 사랑으로서 공감해 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캠프 입소 병사들의 대인관계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서 설명한 것 중 ‘Here & Now’ 관점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것과 입소자 상호 간의 피드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입소자의 성장 배경 및 생각에 대하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가 ‘오로지 그것만 자기 해결책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이 고착화된 원인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를 목회자로서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왜곡된 시각으로서 ‘각자의 삶에 따라 옳다 여기는 다른 어떤 것에 경도된’ 각 사람의 보편적 범죄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대안 즉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 고립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²² *Ibid.*, 12-15.

교정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아 강도가 비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

병영 내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의 진심어린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로서의 군종목사상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전 캠프 내에서도 이어지고 강화된다면, 비전 캠프의 선교적 효과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이라 볼 수 있다.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종교 행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를 가진 입소 병사 위주로 종교 행사 참석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필자가 이전에 실제로 경험했으며 현재 교관으로 지원 중인 사단 내지 군단 비전 캠프에서는 천주교나 불교 종교인이 아니고서는 전원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수요 예배를 위한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 사항으로는, 그 때만큼은 입소 병사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의 초대 메시지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특별히 주안점이 될 만한 키워드를 ‘공동체’로 설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외되었던 비전 캠프 입소 인원에게, 그들조차도 소외시키지 않고 받아 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은, 향후 공동체에 소속되어도 충분히 살 만한 자아 강도의 증강뿐 아니라, 속칭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진전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남들은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시선으로 간주하는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군종목사의 이미지는 복음 전파에 있어 그 촉매제가 되기 쉽다.

더 나아가, 3박 4일의 비전 캠프는 각 입소 병사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며, 따라서 이후에도 필요에 따른 부대 및 보직 조정, 정기적인 상담관 및 상담병 연결 등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비전 캠프를 통

한 교회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전 캠프 수료 그 이후에,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가 선교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특정 종교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육군본부 군종실에서 발행한 《비전캠프 선도 사례집 : 다시 찾은 나의 꿈》에 따르면, ‘분노와 절망 및 냉소에 일관하는 일상을 살아왔지만, 비전 캠프 퇴소 후 부대에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변과 잘 어울려 지내게 된 A병사’,²³ ‘범대생이지만 사법고시를 보지 못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군에 입대한 후 복무 기피 목적으로 정신착란 및 고의적 기물 파손 등 괴상한 행위를 일삼았지만, 비전 캠프 입소 및 퇴소 후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계속 읽게 하는 등의 조력적인 행동의 결과로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독교 세례를 받기까지 한 B병사’²⁴ 등의 사례를 보면, 비전캠프를 통하여 입소자가 집단 안에서 공동체성을 어떻게 되찾으며, 이것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되는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공동체(학교 등)에서 소외 고립된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공동체(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²³ 육군본부 군종실, 《비전캠프 선도 사례집 : 다시 찾은 나의 꿈》(대전 : 육군본부, 2008), 20-22.

²⁴ *Ibid.*, 34-37.

을 제공해 주는 몇 사람을 만남으로써, 현재 공동체(군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구체적으로 고립 및 소외에서 공동체 참여로—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군 내부의 공동체(교회) 몇 사람을 만남으로, 이전에는 그 공동체(교회) 자체를 잘 알지 못하던 것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 공동체(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⁵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곧,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비전 캠프를 통하여 입소자의 공동체 적응력 및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 인식에 대한 강화와, 더 나아가 비전 캠프에서 주로 교관으로 활동하는 군종목사의 비전캠프 입소자와의 관계 및 영향력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군에서 부적응하는 장병이 나타나는 문제는 비전 캠프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설령 비전 캠프를 시행하는 등의 관심과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건 몇몇 사람의 문제이지 부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군에서 부적응에 의한 사고와 그 가능성의 비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내부적으로 ‘그들만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시각에 머물면 그 대상이 되는 복무 부적응하는 각 개개인의 공동체 내부에서의 소외감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부대 내 결속력의 문제 요인이 노출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삶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의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입영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군 차원에서의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처는 부대 장병들의 사고 예방 및 정신 전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 차원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전 캠프가 육군 각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비전 캠프를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군종목사들에게 있어서 보다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비전 캠프 및 캠프 입소 병사들에게 접근하는 개념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를 통해 안전한 공동체라는,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공감적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왜곡된 신념이 고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캠프 입소 병사들의 이쁨에 공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군종목사의 모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비전 캠프 프로그램 그 자체는 성경적이거나 선교적인 것

²⁵ 이 첫째 가능성과 관련, 개인적으로 3가지 사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입대 이전부터 교교 자퇴 후 의무적인 공동체(학교, 군대 등)에 끝까지 제대로 붙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현재 군에서도 복무 부적응 증세를 보이던 한 사람이, 비전 캠프 입소 및 수료 이후 후속 상담 및 부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군 복무 적응을 한 것은 물론, 김정고시를 통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C병사. ② 집단 따돌림의 부정적 영향으로 남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함으로 군에서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비전 캠프 입소 및 수료 이후 후속 상담 및 부대 차원에서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군 복무 적응도가 많이 좋아진 것은 물론, 현재 공동체(군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얼마 전 간부사관을 지원하기까지—비록 불합격했지만—한 D병사. ③ 본래 일본 창가학회(남묘호렌게교) 신자였고 부대 내에서 내성적 성격에 우울증, 대인 기피 등 복무 부적응 증세로 사단 비전 캠프에 입소하여 상담을 시행했는데, 퇴소 후 대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해 주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라고 말한 E병사.

은 아니다. 어떤 군종목사가 비전 캠프에 입소한 병사들 거의 전원을 전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비전 캠프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비전 캠프 프로그램 간 비는 시간에 틈틈이 전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입소 병사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 준 것이 입소 인원 전원 전도의 영향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비전 캠프에 주로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군종목사들이 보다 성경적인 집단 상담의 시각—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캠프 입소 병사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인류애적인 시각—으로 캠프 입소 병사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만큼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 및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21세기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 홍석균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M. Div.)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신학석사 (Th. M.)
- 육군 수기사 제5198부대 맹호포병삼선교회 담임목사



1. 오늘날 한국 군 선교 현장을 고민하며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군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1년 10개월의 군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군의 특성은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은 특히 복음의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에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군에 와서 힘든 훈련과 내무 생활, 불편한 상하급자의 관계를 직면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게 된다.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없는 선교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군대가 선교의 황금어장인 것을 인식하고 많은 노

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군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단연 세례 운동이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7만 명 정도로 많은 세례를 청년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세례 운동은 ‘비전2020운동’으로 이어졌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75%까지 이루려는 원대한 비전 아래 열심히 세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전2020운동’에 많은 선교학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집단 세례를 집단 개종으로 볼 수 있는가? 세례 운동을 전개할 때 숫자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후에 철저한 양육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지속적으로 주어 세례 신자는 숫자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전2020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2020년까지 기독교 인구 75%를 이룬다는 전제 아래 지금쯤이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50% 수준쯤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운동을 전개한 1998년보다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에서 기독교는 876만 336명에서 2005년 861만 6,438명으로 14만 3,898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2008 한국 교회 종교 현황, 2009년 1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한국 교회에의 전반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군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인을 꼽아 본다면 집단 세례 후에 체계적인 양육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세례에는 열정을 쏟았지만 세례 후 체계적인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난 뒤 물과 거름을 주지 않고 열매를 보려고 한 착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한국 군 선교의 건실한 열매를 위해서는 과

거 군 선교의 철저한 선교학적인 분석과 함께 양육에 따른 효과적인 군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2. 한국 군 선교의 현 실태 및 문제점

과거 군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진중 세례식에만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는 많은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진중 세례식에 투자하였다. 또 군 선교라 하면 민간 교회가 군부대에 가서 위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후방 각지에 가서 위문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물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군 선교에 일익이 되었다.

그러나 군 선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중 세례식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세례를 베풀지만, 기독교 정체성을 세례자들에게 제대로 확립시키지 못한 채 부실 신자만 양산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군 선교 현장은 과거와 같이 선물이나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교회로 군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병사들의 월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족함이 없는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효과적인 군 선교를 위해서는 과거의 군 선교의 방법론을 성찰하고 현재 군 선교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가시적 성과 위주의 진중 세례식

최초 진중 합동 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합동 측이 파송한 이상강 목사가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결실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비롯한 154명이 합동 세례를 받음으로 출

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보병 제26사단(5110부대)에서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2월 5일에는 제5사단(9011부대)에서 한준섭 군종감의 집례로 1,005명이 세례를 받았다. 다음해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 3,390명, 도합 3,478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 최고를 기록하며 군과 한국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합동 세례식이 매스컴을 타고 전 부대와 교회에 알려지자, 각 부대에서는 합동 세례식 붐이 일어나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때가 1차 진중 세례식 운동이었다.

〈표1〉 연도별 세례 현황¹

구분 연도별	합동 세례		일반 세례	계
	횟수	인원		
1971년	6	4,377	2,943	7,320
1972년	39	23,405	18,954	42,359
1973년	43	26,803	17,880	44,683
1974년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이러한 진중 세례식 운동은 비록 1980년대에 주춤하게 되지만, 다시 2차 진중 세례식 운동으로 군 선교는 다시 재도약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새로 ‘군복음화후원회’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중 세례 운동은 1997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서 1999년 216,0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0년에는 187,156

¹ 오덕교, “군 복음화 50년의 역사”, 《군선교신학 1》(2004), 139-140.

² *Ibid.*, 147-148.

명, 2001년에는 191,75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서,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17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²

그러한 세례 운동은 한국 군 선교에서 가히 높이 살 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많은 세례 장병의 증가가 가시적인 기독교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다음 표는 기독교의 세례 장병의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표2〉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현황³

종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63,53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국방 개혁 2020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군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 수세 실적이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또 2007년에 원불교에서 최초로 군종 장교가 들어오면서 신자대비 군종 장교의 숫자를 맞추자는 주장에 따라 전수 조사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군종 장교 숫자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인원 대비해서 기독교가 여전히 많은 세례 신자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

〈표3〉 비전2020실천 운동 사역 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⁴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182,230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174,550	171,435

³ 육군본부, 《군종 50년사》(2002), 597.

〈표4〉 종교별 비교현황 (국방부 전수조사 통계기준/2009년 9월)⁵

구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무종교
신자인원	655,000	180,488	59,835	86,755	1,167	782	325,973
신자대비(%)	100%	27,56%	9,14%	13,25%	0,18%	0,12%	49,77%

※ 국방부 백서 (2008년) 참고 / 전군 655,000명 기준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독교 세례 신자 통계 이면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때,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진중 세례식이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왜냐 하면 많은 세례군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대 배치 받고 자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세례 신자들이 다른 종교를 번갈아 다니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올바른 세례 교육 없이 세례를 받게 되다 보니 기독교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채 부실 신자가 양성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부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기독교 정체성과 세례의 상관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례를 받기 위해 교육받은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 달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받았던 대상자는 48%가 기록했지만, 부대에서는 18%밖에 되지 않았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던 자들은 11%, ‘기억이 안 난다’ 6%, 무응답이 49%를 차지하였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물음에, 사회에서는 ‘그렇다’라고 65%가 대답했지만, 부대에서는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 ‘세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물음에, 사회에서는 5%만

이 ‘그렇다’고 하였지만, 부대에서는 69%나 차지하게 되었다. ‘또 훈련소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명확한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회에서는 78%였지만, 부대에서는 46%밖에 되지 못했다.⁶

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례에 따른 올바른 세례 교육이 부족했던 군 선교의 이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세례 운동은 기독교 거룩성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세례는 기독교의 성례이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에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세례는 과거 옛사람이 죽고 죄 용서를 받아 성령으로 새사람이 되는 진지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세례식을 군대에서 많은 인원에게 주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세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세례 숫자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기독교의 거룩성을 격하시키게 된 것이다.

2) 군 선교 사역자의 부족 및 이동

한국 군 선교의 역사가 60년이 되기까지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요인은 군 선교 사역자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1년 2월 28일 32명의 목사와 신부가 무보수 위촉되면서 군중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후방 각지에서 군 선교 사역자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군 선교 사역자가 군 선교에 큰

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66.

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123.

⁶ 남송현, “군 선교 전락으로서 훈련소 진중 세례식에 대한 연구”(2002), 86-90.

영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 선교 사역자들의 제한되는 상황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1) 군 교회 대비 사역자의 부족

군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는 군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군인 교회를 통하여 활발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배, 위문, 세례식, 성찬식, 그밖에 전도 집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는 전후방 각지에 육군 849동, 해군 35동, 공군 85동, 국직 35동으로 총 1,004개의 교회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군인 교회 대비 군종 장교의 숫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종 장교의 숫자는 육군 191명, 해군 29명, 공군 44명으로, 합계 264명이 종군하고 있다.⁷ 그렇다 보니 연대급 이하의 군종목사는 주일이 되면 대대 이하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0년 국방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군종 장교 숫자도 점차 줄이는 상황이라 점점 어려움은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종목사 숫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군 선교는 민간 사역자를 협력 파트너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군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 교회의 사역자가 본 교회의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오후에 군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또는 노회나 교회를 통하여 파송한 군 선교사들이 담임목회자가 없는 군인 교회를 맡아 담임하면서 부족한 사역자의 숫자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역자의 숫자는 687명밖에 되지 못한다. 또 이러한 민간 사역자의 숫자는 상급 부대 교회나 대도시

있는 군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기 때문에 전방에 대대급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군종 장교 264명에 민간 사역자의 숫자 687명을 더한다 할지라도, 총 사역자는 951명으로 1004 군인 교회를 책임지기에 부족한 숫자인 것이다. 더군다나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민간 사역자는 370명⁸에 불과해서 체계적인 군인 교회 운영과 전략적인 군 선교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 군종목사의 전출에 따른 선교 불안정성

군종목사가 군 선교에서 영향력은 민간 군 선교 사역자보다 훨씬 크다. 군인의 신분이므로 부대 출입이 자유롭고 행정 업무 처리도 빨라서 사역에 있어서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는 군인 교회를 맡을 때 그곳에서 군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선교하기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종목사는 군인의 신분이므로 2년 내지 1년에 전출을 가야 하는 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담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한 목회자가 군 교회를 담임하면서 세웠던 사역의 방향이 다음 사역자가 오면 연계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군인 가족들이나 성도들도 군종목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를 받아들일 때마다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별로 교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목회자의 신앙 강조점에 따라서 일관된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⁷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123.

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Ibid.*, 114.

3) 양육 시스템의 부족

군인 교회는 사역자가 안정적이지 못한 군 선교 현장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양육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피교육자가 바뀌어도 고정화된 양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정된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교육자가 바뀌어도 그 교육 과정의 순서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표5〉 군인 교회 병사 양육 현황 (2010년 11월)

조사 대상	새 가족 양육	교리	성경 개관	교회사	신앙 실천	세계관 (문화)	기타
1, 2, 3, 6, 7, 8, 9, 11, 12, 15, 17, 20, 21, 23, 25, 26, 27, 30, 31, 37, 39, 53, 55, 56, 57, 60, 61, 63, 66, 71, 72, 73, 75 사단 육사, 부사교, 3사교, 보병학교, 중행교	1, 2, 3, 7, 8, 9, 11, 12, 15, 20, 23, 26, 27, 30, 39, 55, 56, 57, 60, 61, 71, 73, 75사단	25, 31 사단	17 사단	25 사단	25, 31, 39 사단	25 사단	리더십(3사단) 큐티 나눔 (7, 15, 21, 37사단) 전도(11사단) 신앙 심화, 영어 성경 (20사단) T E E (27, 61사단) 성경 공부 (30, 31, 60, 71사단) CCC순 모임 교재 (31사단) 자체 제작 (25, 39사단) 군선교연합회 “북한 사랑” (56사단) 친구야 교재(63사단)
총계 38	28	2	1	1	3	1	18

그러나 오늘날 군 선교에서는 세례를 많이 주어 세례 신자는 양산되고 있지만, 양육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1) 군인 교회 내의 양육 현황

군 선교 현장에서 양육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사단급 교회에게 일일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서 새신자 양육은 다수의 부대가 시행하고 있으나 병사 양육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별로 군 선교 사역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만 양육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었다.

(2) 군 선교 단일 양육 시스템의 부족

이렇게 군 선교 현장에서 양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군 선교 단일 기관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양육 시스템이 미흡한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다.

첫째, 〈좋은 군사〉라는 양육 교재를 2001년 발간하였다.

군에서 세례를 받은 후 정착을 위해서 군인들에게 맞는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양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교재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2010년 10월에 총 88명(군종 목사는 52%였고, 민간 사역자는 48%)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군사〉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8%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서 군선교

연합회에서 발간한 <좋은 군사>가 실제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었다.

둘째, 세례 군인이 전역 후 결연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도록 하였다. 세례 후 유명무실한 신자를 방지하고 전역 후에도 지역 교회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결연 교회를 두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군 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시스템은 막상 신앙 훈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 군인들에게 양육을 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셋째, 세례 후 성찬을 통하여 신앙 성숙을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장병들에게 세례 후 기독교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군선교연합회에서 세례 후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례식을 거쳤음에도 기독교 정체성이 확보되지 못한 장병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없던’ (?) 기독교 정체성이 생길지 의문이다. ‘세례 → 성찬’이라는 순서적 시행이 정체성 ‘형성 → 강화’라는 도식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있을지, 충분한 신학적 토의와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⁹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체성은 한 번의 일회성보다 지속성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장병들의 체계적인 신앙 양육에 대한 고찰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체계적인 양육과 시스템이 없는 선교가 계속된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건실한 군 선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⁹ 정비호, “군 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군선교신학 8》(2010), 76.

3. 군 선교에서 양육 사역의 중요성

그러므로 세례 후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 사역에 사역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양육 사역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군 선교 사역이 될 것이다.

1) 명목주의적인 신앙 방지

헝크 해네그래프는 그가 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가 성공과 번영에 눈이 멀어 탐욕스러운 바알의 신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¹⁰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에 빛나간 미국 교회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는 비단 미국 교회만이 아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명목주의 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고 본질을 상실한 모습인 것이다.

명목주의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21). 사도 요한도 사데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하셨다(계 3:1-3). 이러한 책망은 구약 시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지적되어 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며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밝을 뿐

¹⁰ 헝크 해네그래프, 《바벨탑에 갇힌 복음》, 새물결플러스(2010), 339.

이니라”(사 1:12). 이 모두는 종교의식은 있지만 신앙정신이 없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다.

이러한 명목주의 신앙은 군대 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매년 군대에서 세례를 17만 명에게 주면서 세례 신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례만 주고 실제적인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대에 와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명목주의 신자의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주의 신자들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확고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3년이라는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의 의식을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군 선교 현장에서도 청년들을 명목주의 신자에서 알곡 신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10개월이라는 군생활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년들의 소명과 비전 확립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고 한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감성주의에 빠져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꿈과 비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꿈이 없다고 말하거나, 있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소개한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노후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일반적인 청년들의 모습

이 아니라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그 문제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신앙에 근간을 둔 참된 비전을 심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묵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지만, 그 방황과 혼돈을 바꾸어 온전한 비전을 가지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시 119:105)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청년들의 삶에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과 비전의 확립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사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양육 과정을 통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는 것이다. 특별히 일반 병사와 같은 대상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이 많다. 이들에게 바른 소명과 비전을 심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에게 성경적인 소명과 비전을 심게 되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꾸릴 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 와서 1년 10개월(병사 기준) 동안 머문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른 소명과 비전을 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통해서 소명 의식을 심어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3) 영혼 전도의 효과

군대는 ‘황금어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물고기가 집중해서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이러한 군대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가 사회보다는 용이하고 효과가 크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는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혼란의 시기를 겪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군대 와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군대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또 군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다. 힘든 훈련과 고된 내무 생활에서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영혼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혼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크리스천이 비크리스천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산다면 비크리스천은 크리스천에게 그 이유를 물어올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라고 말씀하셨듯이, 크리스천이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다. 그들이 소망에 관해서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훈련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을 통해 잘 훈련된다면 영혼 전도의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군 선교에서 양육사역의 문제점

군인 교회 내에서도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병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로 세우는 것에 열정을 불태우는 귀한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1) 가변적인 부대 상황

(1) 지휘관에 따른 변화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철저하게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특별히 군대는 지휘관의 영향이 크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휘관의 영향력은 군대 내에서 절대적이다. 이처럼 지휘관은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해당 종교에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나 지휘관이 타 종교가 된다면 심각한 영적 전쟁이 된다. 교회 활동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그 지휘관의 해당 종교에서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양육을 하려고 해도 지휘관이 정해진 종교 활동 시간 외에 어떤 성경공부와 신우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모임이 봉쇄된다. 아무리 목회자가 열정이 있어도 구조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기독교 지휘관이 있는 부대에서는 군 선교 사역자와 잘 협조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경공부나 신우회 활동을 통해서 양육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양육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기독교

지휘관이 다른 곳을 전출이 가게 되어 새로운 타 종교 지휘관이 오게 되면 잘 운영되어 오던 양육 훈련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군 선교 현장은 지휘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곳임을 무시할 수 없다.

(2) 훈련 및 근무 환경에 따른 제한

군대는 전쟁과 방어를 위한 집단이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운영이 훈련과 경계 근무로 유지된다. 훈련 중 공식적으로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군인들이 받아야 하고 전투 부대 같은 곳은 전술 훈련과 같은 많은 훈련들을 소화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교대로 초소 근무나 격오지 근무, 특수 근무, 불침번 등을 돌면서 교대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대는 훈련과 근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훈련이 있거나 근무가 있으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회처럼 양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려운 여건이다.

2) 제한된 시간과 장소

(1) 규정된 종교 활동 시간 내에서만 양육

군대에서 종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날은 일요일과 수요일이다.¹¹ 이렇다 보니 군대에서 민간 교회처럼 평일이나 이 외에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 물론 지휘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 종교 활동으로 정한 날짜와 시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별히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만나고 삶을 나누는 양육 과정을 통하여 인격적인 제자 훈련이 되는데, 군인 교회에서는 이러한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인격적인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다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성경공부와 같은 종류의 훈련은 가능하지만, 깊은 제자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군대 내에서 양육 사역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서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양육 장소의 제한성

또 군인은 군대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양육도 군인 교회 내에서나 영내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이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 군 교회가 영내에 없어서 종교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병사들이 외부 교회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보고 계통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또 영내에서나 군인 교회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열악하다. 사단 이상급 같은 교회에서는 시설이 좋아서 성경공부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소예배실이 있지만, 연대급이나 대대급 교회에서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군 교회는 예배중심으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군 교회의 재정상 성경공부나 양육을 위한 장소를 건축하거나 마련하기에 넉넉한 상황이

¹¹ 국방부, <군종 활동 관련 규정집> (2009), v-4.

¹²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 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44.

¹³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21.

아니기 때문에 양육의 장소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3) 양육 리더의 부족

(1) 리더로 세워지기 부족한 짧은 군 생활

2005년 9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개혁 2020에 따르면, 군 구조 개편과 병력의 단계적 축소화를 다루었다. 총 병력을 현 68.1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¹² 특별히 병의 인력 구조 단계별 인력 조정 추정안을 보면, 2006년도의 45만 명에서 2010년에는 40만 명, 2015년은 34만 명, 2018년도에는 27만 명, 2020년도는 22만 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¹³ 따라서 군대에서 간부를 제외한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 지금의 1년 10개월에서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 상황에 따라 청년들이 입소해서 훈련소 9주(2010년 천안함 사건 때부터 늘어남)를 보내고 후반기 교육(경우에 따라서 4주에서 6주까지 있음)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업무를 배우고 난 뒤에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기는 최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병사들을 리더로 세워서 병사들이 병사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양육 리더로 세워서 후임들을 양육하다 보니 리더나 양육을 받는 자나 신앙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료에게서 신앙을 양육받기를 꺼려 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입대하는 대다수의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양육자와 피양육자 사이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협력 사역자의 숫자 부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 사역자가 필요하다. 민간 교회에서 열악한 군인 교회를 맡아서 양육 리더를 일정 기간 동안 보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대 내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외부 사역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여건이다.

4) 혁신적이지 못한 양육 시스템

(1) 민간 교회 중심으로 사용되는 양육 교재

군대는 군인들이 있는 특수 집단이다. 젊은 군인들에게 맞는 양육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양육 교재는 민간 교회 중심이거나 기성세대를 위한 양육 교재라는 한계가 있다.

(2) 미디어 활용이 부족한 양육 시스템

오늘날 청년 세대는 영상 세대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기존의 양육 방식은 교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부분에 발달된 청년 세대가 문자 중심의 교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3) 소그룹 중심으로 제작된 양육 교재

기존에 많은 양육 교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민간 교회에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양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군대는 시간과 대상의 제한이 따른다. 정해진 종교 활동 시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군인들에게 소그룹 위주의 양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5. 결론 : 21세기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연구를 기초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21세기에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군종병을 활용한 새가족 양육을 시행

군종목사 또는 군 선교 사역자에게 있어서 군종병은 부교역자와 같은 것이다. 기도의 동역자이자 사역의 동역자이다. 군종병들과 잘 동역할 때 효과적인 군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종병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히 군종병을 세워서 양육하도록 시킬 때 같은 병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양육자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양육을 시킬 만한 분량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양육 모델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새가족에 대한 일대일 양육을 말도록 한다. 새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신병들이 많다. 그들에게 4주간의 양육 과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대 배치 받고 교회 오자마자 4주 동안 교육을 받게 한다. 제1과는 복음, 제2과는 예배, 제3과는 성경, 제4과는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때 군종병들은 자신들의 중대 신병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신병들이 자대에 처음 와서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기도 하고, 기독교 마인드로 위로할 수 있다. 그러면 신병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4주간에 걸쳐 양육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중대급 군종병들의 위로와 관심을 통해서 기독교에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군종병 수련회를 통해서 새신자 양육의 선(先)교육을 시킨다.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군종병들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군대는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고 병장들이 전역하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군종병들도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들을 선(先)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시간은 바로 군종병 수련회(약 2박 3일 또는 3박 4일을 교회에서 실시한다)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휘관에게 정식적인 공문으로 요청해서 군종병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 있다. 단 지휘관에게 협조를 구할 때 기독교 '군종병 집체교육'으로 명명하고, 교육 내용은 상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심 병사를 군종병이 잘 관리해서 군 사고율을 줄이는 데 일익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하게 된다. 그래서 군종병 수련회를 통해서 위의 새가족 공부의 '총 4과'를 군종목사나 군 선교 사역자가 먼저 교육하고 군종병들을 서로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 그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교정해 주게 된다. 이렇게 군종병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휘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위문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좋은 선입견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군종병을 활용해서 교육받은 내용만 전하게 될 때 진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군종병으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중대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효과적인 군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다.

2) 저녁 예배 시간을 활용한 강의식 양육

병사들이 양육받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군대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양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양육 과정은 일대일이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양육하는 자) 대 다수(양육을 받는 자)로만 양육할 수밖에 없는 종교 활동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강의식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강의 방식을 택할 때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단, 작은 인원들을 양육할 때나 중대급 교회와 같이 소수인원들을 양육할 때는 소그룹이나 제자 훈련과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

첫째, 보장된 종교 활동 시간을 통한 양육이다.

병사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이다. 다른 시간에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없고 한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전투 부대나 전방에서는 평일에는 바쁜 훈련과 교육 일정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파워포인트와 영상 매체를 활용한 양육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N세대라고 말한다. N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매스미디어에 익숙한 청년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듣는 것이나 읽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책이나 문자보다는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미리 파워포인트 작업과 영상을 제작하고 또는 중요한 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양육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기록하도록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맞는 흥미 유발과 적용이 있는 양육이다.

오늘날 청년들의 감각세대이다. 자신의 관심사에 흥미를 유발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젊은 군인들에게 맞는 이성 교제, 부모님께 효도, 군대 생활의 적응력,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는다.

이러한 저녁 시간에 강의식 양육을 하게 되면 보장된 종교 활동 시간 내에서 양육을 할 수 있고, 다수를 양육할 수 있고, 미디어를 활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으로 훈련

병사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이 1년 10개월이다. 2020년까지 차츰 줄어 1년 9개월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병사들이 군 교회에서 훈련소 2개월 정도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양육과정을 정하면 효과적이다.

첫째,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교회사와 실천신학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군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신앙 도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설교와 저 본문의 설교를 산발적으로 하다보니 신앙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없고 들었던 내용이 흩어진 파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파일을 한 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두는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를 통해 조직신학, 성경 개관을 통해서 성경신학,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천신학, 창조론과 문화를 통해서 세계관을 양육 과정을 만든다면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양육 과정에 따른 주별 집중화된 양육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체계적인 과정을 둘 때 주별로 집중화된 양육을 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는 12주, 성경 개관은 16주, 교회 역사는 12주, 신앙생활은 12주, 창조론과 문화는 12주로 해서, 총 64주를 통해 훈련소를 제외하고 1년 3개월의 체계적인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별 양육 시스템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입대하든지 꾸준한 출석만 이루어지면 모든 과정을 양육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주별 양육 과정의 비중은 군 선교 사역자가 중요시 하는 부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고 군 부대의 훈련 일정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셋째, 양육 후 수료식 및 소감 발표의 시간을 가지면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집중화된 양육 훈련과 함께 수료식을 하고 수료증을 함께 주게 되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양육 과정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수료식을 할 때 간증이나 소감을 발표하면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양육을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넷째, 양육 과정 중에 또는 양육 후 전도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 양육 과정의 단계는 없다. 어느 과정부터 나와도 그 순서에 맞게 양육을 받으면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 차례에 있는 과정에 참여하면 되

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육과정에 초청하기도 용이하다. 어느 때나 전도를 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과정을 마치고 좋은 효과를 보았을 때 다른 전우들을 초청할 수 있다. 양육과정은 설교나 예배와 같이 진지하거나 중엄한 분위기에서 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초청하기에 효과적인 것이다.

군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선교의 현장이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 현장이다. 그들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건강한 군인으로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무장된 군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군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여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민족의 기독교 청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길 기대해 본다.

관 권
소 유

군선교신학 10

2012년 10월 5일 인쇄

2012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2,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